

홍순철 작 '검은 강 숨은 숲-6Sense' (ACC제공)

# 과거와 현재 그 사이에 얽혀있는 혼합된 현실



예술과 과학 그리고 상상의 만남, 현실과 가상의 뒤섞인 혼합현실, 생체모방로봇의 자율주행...

연말을 맞아 다채로운 융복합, 실험 콘텐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전당)은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 전시를 5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문화창조원(복합1관, 5관, ACT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ACC 융복합 콘텐츠 전시는 창작자들이 리서치, 연구, 개발을 통해 완성된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자리다.

먼저 5일부터 15일까지 문화창조원 ACT 스튜디오2, 3에서 열리는 '크리에이터스 인 랩 쇼케이스'에서는 작가 7인이 참여한 실험적 작품을 볼 수 있다. 마이클 휘틀, 정문열, 정지연, 제레마야, 타이펜, 문준용, 갯스콧, 언해피서킷 등 모두 7인이 참여한다.

특히 문준용의 'Augmented Shadow' 연작은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 위치하는 그림자의 특성을 증강새도우로 결합해 판타지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가상현실, 증강 현실을 시적인 감수성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실물과 다른 그림자 형태가 인상적이다. 작가는 누구의 아들이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자신과 작품을 봐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영국 작가 마이클 휘틀의 'Still Lif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꽃을 세포 생물학, 진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프로젝트다. 오프닝은 5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6일

## ACC, 내년 1월27일까지 융복합콘텐츠 전시...문준용, 마이클 휘틀, 홍순철 등 참여

에는 크리에이터스 토크가 이어진다.

'디지털 헤리티지 쇼케이스: 통로난 VR' 콘텐츠도 볼 만하다. 인도네시아 전통 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작품은 가상현실로 아시아 건축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는 ACC 창작센터와 포항공대가 협업해 제작 개발했다. 텐세그리타 구조를 이용해 개발한 생체모방 로봇의 자율주행을 선보일 뿐 아니라 향후 로보틱스와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연결 정보사회인 21세기 자연과 생명, 공간과 시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예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됐다.

나주의 '숨은 숲' (죽설현)과 주변의 시

공간을 그대로 ACC로 옮겨온 혼합현실 '검은 강, 숨은 숲-6 Senses' 전시가 바로 그것.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ACC복합1관에서 개최되며 ACC창작센터와 Studio ART55(작가 홍순철)가 협업했다.

숨은 숲(죽설현)을 전당 전시장으로 옮겨 현실과 가상, 현실과 복제, 실제와 가상, 현실과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시공간을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순철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여섯 감각을 찾는 이야기가 이 작업의 내용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있는 '지금, 여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서 6 Senses 찾기는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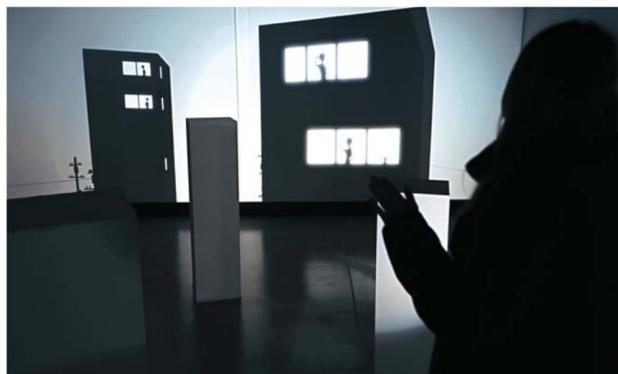
모든 공간의 사물들은 시간 속에서 계속 변화한다. '숨은 숲'의 시공간 속 몇 생명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본 자연과 생명의 모습들은 찰나의 시공간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나에 체험할 뿐이다."

당초 이 작품은 홍 작가가 4년 전 나주의 숨은 숲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강렬한 체험이 모티브가 됐다.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것을 새롭게 듣고, 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외부와 연결된 '각각의 확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감각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홍 작가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상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20여 년간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일했으며 현재 다큐멘터리 감독과 미디어 설치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프닝 행사는 10일 오전 11시 복합1관 로비에서 개최된다. 무료 관람이며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그림자의 특성을 풀어낸 문준용 작 '그림자 증강 현실'.



## 클라리네티스트 조성호 리사이틀

11일 금호아트홀...피아니스트 김재원 협주

클라리넷으로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클라리네티스트 조성호가 '아리아(Aria)'라는 부제로 리사이틀을 연다.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조씨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작곡가인 루이지 바시, 도나토 로브렐리오, 카를로 델라 자코마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을 통해 1800년대 베르디, 푸치니 등 오페라 작곡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페라의 선율을 주제로 삼은 정통 클라리넷 작품들을 무대에 올린다.

레퍼토리는 루이지 바시-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 주제에 의한 디베르티멘토', 베르디의 '리콜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 카를로 델라 자코마-푸치니의 '토스카 주제에 의한 환상곡, 작품 171',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주제에 의한 환상곡, 작품 83'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조씨는 지난 2016년 20년 만에 열린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수석 선발 오디션에서 200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선발돼 화제가 됐다. 이후 활동 10개월 만에 종신수석으로 최종 선임됐다

다. 선화예술고, 선화예고를 졸업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오페라를 사사하고 졸업 후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대학에 입학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셀마'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자로, 최근에는 '헨리 셀마'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의 솔로 리사이틀을 비롯해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영화비평지 '씬1980' 창간

광주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은 잡지가 나왔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광주영화비평지 '씬1980'을 창간했다.

'씬 1980' 제호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영화용어인 '씬(Scene)'이 결합된 단어다. 영화운동 중 '광주비디오상영투쟁'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며 오늘날의 광주 영화를 기록, 비평,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이번 창간호에는 영화 비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총 8편의 비평문이 수록됐다.

광주영상박물관이 설립목적인 시민중심의 영화센터로 설립돼야 한다는 정책비평, 5월 다큐멘터리를 짚는 여성 감독 '은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공선숙의 신작소설 '은주의 영화'에 대한 문학평론가 김영삼의 소설비평, 비평문화 활성화



를 위해 광주씨네필름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화비평공모 선정 비평문도 담겼다.

또 광주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에 대한 기록과 비평을 이어나가기 위해 연속비평을 시작한다. 첫 주인공은 김정자, 유명상 감독이다. 광주최초독립영화 '박관현' 다큐멘터리 추적기는 광주의 영화관련 자료수집과 연구가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졸업생 모두 함께 '한그루 도예전'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 20주년 기념전... 14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학과장 윤영근)는 지난 1999년 개설된 전남도립 장흥대학 도자기공예과가 그 출발이다. 이론과 실기가 어우러진 교육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들은 다양한 도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그루 광주-전남 도예가협회(회장 강철은) 20주년 기념전시회가 오는 14일

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1월부터 20회 졸업생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기획전인 매년 졸업 전시와 동문전이 열리지만 '한그루 도예전' 이름으로 모든 졸업생이 참여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에는 학과 개설 초기부터 참여한 윤영근·조재호 교수의 작품과 함께 김순희·정현주 등 1회 졸업생부터 김정애·김서진 등

최근 졸업생들의 작품까지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다기 세트, 향아리, 접시, 그릇 등 실용 도자기부터 도자인형,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도예차문화과는 한국의 전통도자기와 현대 도자기 제조법과 다도·다도구 제작 기법을 접목한 교육으로 미래의 도예와 다도 산업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융기성형물레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강철은 작 '2019 patchwork'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CES INNOVATION AWARDS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산 행사서 [혁신기술상] 수상

BIG INNOVATION CHAIRMAN'S CHOICE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구분	월	6개월	1년
개인	₩ 300,000	₩ 1,200,000 (월 ₩200,000)	₩ 2,000,000 (월 ₩166,670)

연회비 (월 2회 휴무/매월 2, 4주 수요일)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10% 할인
- 객실 이용시.....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